

종합·해설

‘두번째 도전’ 박근혜 경제민주화·복지 천명

대선출마 공식 선언...주변 인물·극복 과제는

광주·전남 출신 이정현·김장수 캠프 활약

빈약한 역사인식·육영재단 의혹 등 부담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제민주화 추진을 천명했다. 그는 유력 대선 주자로 정도(正道) 정치 등 강점도 많지만 당내 통합 문제나 강한 보수색채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경제민주화·국민행복에 방점 =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분배와 복지를 통한 국민행복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대한민국,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국정운영의 기조인 나라”를 강조하고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로 ▲경제민주화 실현 ▲일자리 창출 ▲한국형 복지 확립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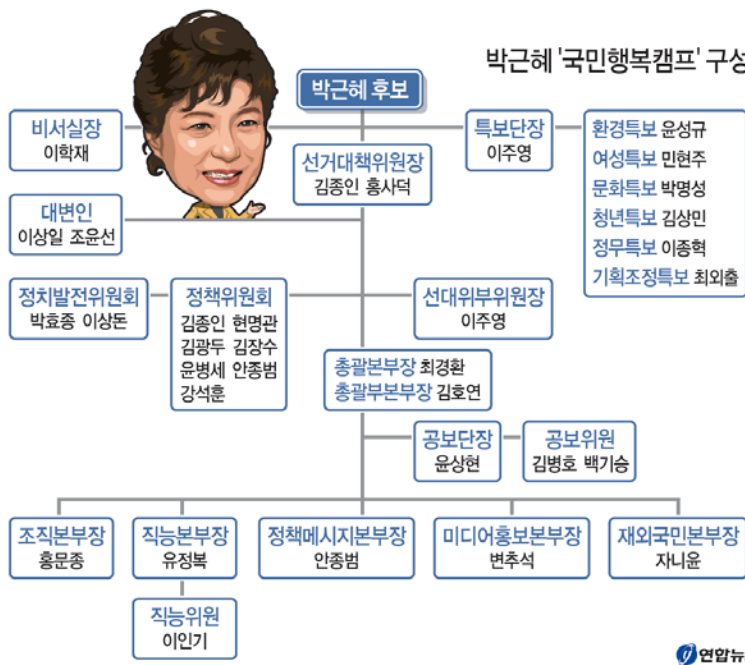
이날 출마선언은 2007년 대선에 이은 두 번째 대권 도전이다. 하지만, 출마선언문에 담긴 정책과 메시지는 5년 전과 차이가 크다. 보수에서 중도 쪽으로, 성장에서 복지·분배로 이동했다.

그는 2007년 6월 11일 대선출마를 선언하면서 ‘5년 내 선진국 도약의 기적’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번엔 국민행복을 위한 변화와 희망에 방점을 찍었다. 2007년 당시 ‘줄·푸·세’를 내세웠다면 이번에는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배치했다.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광주·전남 누가 뛰나 = 캠프는 김종민 전 비대위원과 홍사덕 전 의원의 투톱 체제로 출범했다. 박 전 비대위원장은 원내·원외로 나눠 캠프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캠프에 합류한 광주·전남지역 출신은 대략 4명.

우선 나주 출신인 김광두 서강대 명예교수다. 김 교수는 박 전 비대위원장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이다. 김 교수는 경제정책 부분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또 19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상일 의원(합평)은 4·11 총선 당시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이어 캠프 대변인을 연이어 맡았다.



곡성 출신인 이정현 최고위원은 경선에서 승리하면 본선에서 다시 한번 ‘박근혜의 입’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꽃장수’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김장수 전 국방장관(광주)은 정책위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게 됐다. ◇‘대권 재수’ 극복해야 할 과제는 = 박 전 위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을 최대 자산이자 부담으로 꼽는다. 박 전의 향수에 기댄 지지표가 많기도 하지만 야권에서 줄곧 제기하는 빈약한 역사인식 논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이다.

2007년 경선 당시 제기했던 사생활 관련 의혹도 본선에서 더 강하게 거론될 전망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박 전 위원장과 고 최태민 목사와의 관계,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비리 의혹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많았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 틀 논란을 거치며 형성된 ‘불통’의 이미지도 넘어야 할 산이다. 캠프 인선과정에서 보수적 색채가 강한 인사들로만 꾸렸다는 점도 극복 과제 중 하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넥타이 잡힌 MB친형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초중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다 저속은행 피해자들에게 넥타이를 잡히는 등 봉변을 당했다. 피해자 20여명은 이날 법정 입구에서 ‘이상득을 구속하라’, ‘대선자금 수수하라’며 구호를 외쳤다. 일부 피해자들은 이 전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지기도 했다. /연합뉴스

박지원 대표 저축銀 금품수수설 의혹 반박 “검찰과 생명 걸고 싸우겠다”

민중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에서 자신의 저축은행 금품수수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검찰이 아무리 권력이 좋다고 하지만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는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수차례 국민 앞에 말씀드렸듯 솔로몬 저축은행, 보혜 저축은행, 미래 저축은행 등 어떠한 저축은행으로부터도 단 한 톨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의거해서 그렇게 서거했고, 한명숙 전 총리는 많은 고초를 겪고도 두 사건에 대해 둘 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런 우리 민주당에 대한 세 번째 탄압”이라며 “(검찰과)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잇따른 검찰발 의혹 보도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4~5년간 원내대표 등을 맡아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가장 날카롭게 비판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통합진보당 원내대표 심상정 통합진보당은 1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재선의 심상정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이날 의총에는 심 의원을 비롯해 노회찬·강동원·정진후·김재남·박원석·서기호 의원 등 의총 재적 의원의 과반 이상인 7명이 참석해 심 의원을 만장일치로 합의추대했다. 통합진보당 중앙선관위는 최근 중앙당기회에서 이석기·김재현 의원이 제명돼 의원자격을 상실했다고 판단, 의총 재적 의원을 11명으로 유권해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故 박정희 딸...퍼스트레이디 대행 이력 민주당 “사실상 추대...박정희 연상” 맹비난

박근혜는 누구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자 5선(選) 국회의원이어서 그동안 녹록지 않은 정치력을 쌓아왔다. 12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우리나라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된다. 1952년 2월 대구에서 태어난 그가 9살이던 1961년, 부친은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며 정권을 잡았고 1963년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후 1979년까지 그는 10·20대를 청와대라는 권력의 심장부에서 보내야 했다. 영예로운 이 위치에서 그는 두 번의 커다란 상처를 경험하게 된다.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를 거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떠난 1974년 모친이 광복절 기념식에서 피살당해 급거 귀

국한다. 이후 퍼스트레이디를 대행하는 등 일찍 정치적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1979년 10·26사태로 아버지마저 잃었다. 이후 신당동 옛 집으로 돌아와 야인(野人)으로 18년으로 보냈다. 다만, 걸스카우트 명예총재와 육영재단 이사장, 영남대학교 이사장,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을 맡으며 부모의 유지 계승에 전념했다. 정계 입문은 1997년 대선에서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도우면서 시작했다. 이후 46세인 1998년 대구 달성 15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다. 이어 2000년 총재 경선에서 부총재로 선출되며 정치적 비약을 이뤘으나 이듬해 이회창 총재에 반발, 당 개혁안을 요구하며 탈당한 후 ‘미래연합’을 창당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중통합당은 10일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당내 민주주의가 실종된 ‘사실상 추대’라며 “새누리당은 ‘박근혜의 사당’으로 변질됐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박 전 위원장이 이사장을 지낸 아킬레스건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회에서 “민심의 바다에서 역동적인 경쟁이 펼쳐지기를 기대했으나 독선 우물에서 사실상 추대로 귀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박 전 위원장은 이제 자신이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며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군사쿠데타와 유신으로 국가를 사유

화하고 종신집권을 추구했던 것이 연상된다”고 비판했다. 대선주자인 손학규 삼일교문은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의 대선캠프 인적구성에 대해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하는데, 좀 과거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박 전 위원장이) 아버지 그늘에 갇혀 있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 주변 사람들도 그 시각을 공유한다”고 말했다. 배재정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의 강제헌납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은 누가 앉혔는지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 국가권력을 동원해 이뤄진 인권과 재산권 침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박 전 위원장에게 공개질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출신 국회 상임위원장 프로필

<p>시장·군수 거친 정책브레인</p> <p>국토해양 주승용 의원</p> <p>1991년 전남도의회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여천군수와 여수시장에 연이어 당선됐다. 초선 시절인 2007년에는 건설교통위 간사를 지내 국토 분야와 인연이 있다. 18대에서 전남 최다득표율로 당선된 뒤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을 지냈고, 지난해에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당 정책을 진두지휘했다. 합리적이며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국정감사 시에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문제점을 지적해낸다는 평가받았다. ▲고흥(60) ▲고려대 경영대학원 ▲전남도의원 ▲여천군수 ▲여수시장 ▲17.18.19대 의원 ▲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총괄 정책위의장</p>	<p>4選의 386 운동권 만형격</p> <p>환경노동 신계륜 의원</p> <p>1991년 야권통합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1992년 14대 총선에서 서울 성북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됐으나 15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16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 및 인사특보로 활약하며 ‘차세대 주자’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06년 2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해 민주당 서울시장 선거 후보경선에 출마했으나 박정희 의원에 패했다. ▲합평(58) ▲고려대 총학생회장 ▲14·16·17·19대 국회의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통합민주당 사무총장</p>
--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비독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경매투자

- ▶ 실전경매 배우실 분
- ▶ 교육 / 임차보증 550만원
- ▶ 특수물건만 취급
- ▶ 배우면서 투자가능

투자자 모집

- ▶ 낙찰받은 경 / 공매 물건
- ▶ 근저당설정 / 가등기로 보장
- ▶ 년10~30% 수익률
- ▶ 기간 : 1년정도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l.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